



보도시점 2026. 1. 18.(일) 11:00
1. 19.(월) 조간

배포 2026. 1. 16.(금) 16:00

농림축산식품부, '청년과 함께하는 농업행정' 첫걸음

- 2026년 제1기 121명 채용으로 농업행정·홍보 분야 실무경험 및 정책참여 기회 제공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청년들에게 농업행정 분야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제1기 청년인턴 121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.

응시자격은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청년(만 19세~34세)으로, 열린 채용 원칙에 따라 어학성적 등 정량적 우대요건(이른바 '스펙')을 배제하고,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. 특히, 올해부터 신설된 '정책제안서'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.

채용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, 나라일터, 청년인재DB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('26.1.19.~1.30.), 채용절차는 원서접수('26.1.26.~1.30.)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.

※ 채용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여건, 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이번에 선발되는 2026년 제1기 청년인턴은 농업행정 및 홍보 등 2개 분야에서 근무하며, 농업·농촌 정책 지원과 행정·홍보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. 근무 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22명, 농림축산검역본부·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99명 규모로 운영된다.

청년인턴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(6개월)이며, 농림축산식품부는 근무기간 동안 국정 참여 경험과 농식품 분야 정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현장 방문,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·지원 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.

※ 소속기관 청년인턴 근무기간 및 채용일정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필요

김종구 차관은 “청년인턴 제도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을 넘어, 청년들이 농업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전문 분야별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”라며,

“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현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 인턴 운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운영지원과 인사팀	책임자	과 장	김상진 (044-201-1250)
		담당자	사무관	남상현 (044-201-1263)